



천안 동남구 마을역사 아카이브 구축 용역

- 최종보고 -

2016년 1월 29일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CONTENTS

I 과업의 개요

II 과업의 수행방법

III 마을조사 결과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3. 주요 추진경위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배경

> 천안은 근대사에서 '충절'과 '호국'의 고장으로 알려짐

- ... 과거 '천하대안(天下大安)의 땅',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불림
- ...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주도한 '충절'과 '호국' 등의 지역정체성 보유

> 소멸될 위기에 처한 천안 지역(동남구)의 정체성과 유산 보전·계승 필요

- ...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마을의 전통 문화 및 민속 유산의 소멸위기
- ... 지역(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산과 정체성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과업의 목적

> 천안 동남구 마을의 역사·민속 자료 조사 및 보존체계 구축

- ... 천안 동남구의 유·무형 마을유산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 ... 마을의 역사문화유산 및 정체성을 보전·계승하는 계기 마련

2. 과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

- > 조사대상 범위 : 자연마을 형성 이후 ~ 2000년대 이전
- > 과업수행 기간 : 2015년 8월 13일 ~ 2016년 2월 8일 (6개월)

내용적 범위

- > 예비조사 및 조사대상 마을 선정

... 기초현황 자료 수집 및 조사대상 마을 선정(10개 마을)

- > 기초조사 및 심화조사

... 기초조사 : 다양한 유·무형 마을유산 조사

... 심화조사 : 구술채록 조사, 근현대 사진 및 소장문서, 주민생활상 등 조사

- > 보고서, 마을지 발간

... 마을 조사 및 수집자료 보고서, 근현대 사진자료집, 마을지 제작

2.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원의 11개 마을(33개 법정동·행정리)

- 목천읍 : 동평리(1리, 2리, 3리)
- 풍세읍 : 미죽리(1리, 2리)
- 광덕면 : 광덕리(1리, 2리, 3리, 4리)
- 북 면 : 은지리
- 성남면 : 봉양리(1리, 2리, 3리, 4리)
- 수신면 : 장산리(1리, 2리, 3리, 4리, 5리)
- 병천면 : 도원리(1리, 2리, 3리, 4리), 용두리(1리, 2리, 3리)
- 동 면 : 행암리
- 원성1동 : 유량동(17통, 18통, 19통)
- 청룡동 : 구룡동(1통, 3통, 28통)

3. 주요 추진 경위

추진경위

- > 2015년 08월 07일 : 용역계약 체결
- > 08월 12일 :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 업무협의
- > 08월 20일 : 천안시 복지문화국장 인터뷰
- > 08월 31일 : 전문가 인터뷰
- > (김준기 원장, 이정우 (전)사무국장, 임명순 선생)
- > 09월 02일 : 대상마을 후보 현장답사 (23개 마을)
- > 09월 07일 : 착수보고회
- > 09월 09일 : 충남연구원 내부 연구심의회 및 자문회의
- > 09월 17일 : 대상마을 확정(11개 마을)
- > 09월 18일 ~ 25일 : 읍면별 간담회
- > 09월 21일 : 자문회의 (임명순 선생, 김종식 선생, 조한필 부국장)

3. 주요 추진 경위

추진경위

- > 2015년 10월 08일 : 조사원 워크숍
- > 11월 18일 : 자문회의 (김준기 원장)
- > 11월 25일 : 조사원 워크숍 (1차 조사결과 수합)
- > 12월 03일 : 천안 향토사학자 1차 검수 의뢰
- > 12월 08일 : 자문회의 (임명순 선생)
- > 12월 16일 : 중간보고회
- > 2016년 01월 11일 : 마을조사 최종 취합 및 향토사학자 검수 의뢰
- > 01월 13일 : 자문회의 (김준기 원장, 이정우 (전)사무국장)
- > 01월 20일 : 자문회의 (임명순 선생, 김종식 선생)
- > 01월 29일 : 최종보고회

II

과업 수행방법

1. 마을역사 개념 및 범위
2. 마을역사 조사 방법론
3. 마을역사 조사 세부 내용
4. 연구진 및 자문전문가

1. 마을역사의 개념 및 범위

마을의 정의 및 마을역사의 개념

> 마을의 정의

- ...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곳, 이웃에 놀러 가는 일
- ... 법정리(동), 행정리(동), 자연마을 등

> 역사 및 민속의 정의

- ... 역 사 : 인류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또는 그 기록
- ... 민 속 : 민간 생활과 관련된 생활풍속이나 습관, 신앙, 기술, 전승문화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마을역사는 곧 마을민속을 의미

> 마을역사(마을민속)의 개념

- ... 마을에는 작게 가족역사(민속)이나 가정역사(민속)도 전승될 수 있고, 크게 지역역사(민속)이나 국가역사(민속)도 전승될 수 있음
- ... 가정역사(민속)를 두고 '우리 동네역사(민속)'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역역사(민속)이나 국가역사(민속)을 두고 '우리 마을역사(민속)'이라 할 수 없음

1. 마을역사의 개념 및 범위

마을역사(민속)의 범위

> 마을공동체 민속

- ... 마을에서 전승되는 민속 가운데 가족민속이나 가정민속을 제외하고 특히 마을 단위로 전승되는 마을공동체 민속
- ... 전승주체가 마을공동체적 성격을 지니는가에 따라 마을 밖에서 연행해도 마을민속으로 포함

> 마을 고유의 민속

- ... 마을에서 전승되는 민속 가운데 다른 마을이나 고을에서 전승되는 민속의 일반성을 제외하고 해당 마을에서만 전승되는 마을 고유의 민속
- ... 해당 마을만의 개성을 지닌 민속은 모두 마을민속에 포함

> 연행되는 구체적인 현장민속

- ... 마을에서 실제 연행되는 구체적인 현장민속
- ... 어디서나 있는 민속이라도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 마을현장에서 독특하게 연행되는 민속은 마을민속에 포함

2. 마을역사 조사 방법론

마을조사 기본방향

- > 마을은 공동체문화의 최소단위이자 질적 다양성이 천차만별
- > 마을조사는 모든 마을사람이 주요 제보자라는 관점에서 조사
- > 마을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주변적인 인물을 눈여겨보아야 함
- >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조사시기가 중요함
- > 조사기간을 정해 두고 여러 차례 방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 마을민속의 조사장소는 마을사람이라는 주체의 활동 영역에 의해 결정됨
- > 마을민속 조사가 마을조사의 핵심이지만, 마을사와 마을사회, 마을행정, 마을경제, 마을인구, 마을지리 등 마을 문화의 요소를 두로 조사해야 함

2. 마을역사 조사 방법론

마을역사 조사의 기본체계

> 마을을 개척한 입향시조 및 개척한 시기

- ... 입향시조는 마을사를 밝히는 출발점임
- ... 마을을 개척한 성씨와 마을사를 전개시켜 온 성씨들의 집단을 선후관계 속에서 마을역사를 파악

> 지명 유래와 마을의 정체성

- ... 마을명과 지명의 내력을 밝히는 이야기 속에는 마을의 인물과 마을의 역사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고, 마을의 정체성과 마을에 대한 인식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됨

> 인물전설과 구전역사

- ... 입향시조에 관한 전설에서부터 마을의 중요 인물에 대한 일화를 수집
- ... 실제로 있었던 인물의 실화나 일화, 일반 사람들의 역사적 고비를 넘기면서 겪었던 경험담이나 목격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2. 마을역사 조사 방법론

마을역사 조사의 기본체계

> 당신화와 신앙의 역사

- ... 당신화 및 당굿 등의 유래담을 통하여 마을 형성사 및 마을역사를 일어 낼 수 있음

> 역사의 전개와 마을역사의 관련성

- ... 한국사 일반의 전개과정과 마을역사는 어떠한 연관성 속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야 지역사의 독자성과 보편성이 함께 드러남

> 민속놀이와 세시풍속, 일생의례의 변화

- ... 민속놀이와 세시풍속의 유래 또는 변화를 통해서 마을사람들의 생활사를 추적할 수 있음

> 생업기술의 역사 및 기타 생활사

- ... 농지의 개간과 들의 확보, 농법의 변화, 두레의 해체, 수리시설의 조성, 시비의 변화, 소작제의 변화 등 각종 생업활동과 그 변화과정을 조사

3. 마을역사 조사 세부내용

현황 및 행정구역 변천

> 현 황

- ... 면적, 마을별 인구수 및 세대수
- ... 행정리 명칭 및 관할구역(자연마을) 현황,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현황
- ... 입지 및 도로 현황
- ... 우편번호 및 도로명주소 현황 등

> 행정구역 변천

- ...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현황
- ... 이후 행정구역 변화

3. 마을역사 조사 세부내용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명칭유래

... 현재 마을명이 생긴 유래

> 마을유래

... 마을입향 시조, 성씨집단 및 세거지

... 마을조성 시기 및 최초 정착지

> 마을지명

... 자연마을명 유래 및 위치,

... 골자기, 고개, 산 및 봉우리, 평야 등의 명칭 유래 및 위치

3. 마을역사 조사 세부내용

근·현대 역사자료

> 자연 및 경관

→ 하천, 공원(식물원 등), 보호수 및 고목, 기상 및 기후, 자연 및 인공경관 등

> 마을인물

→ 관리, 효자·열녀, 노비, 정치인, 행정가, 학자 등 마을 관련 인물

> 마을민속 및 공동체

→ 세시풍속, 관혼상제 등 평생의례, 민속놀이, 두레, 계, 마을행사 등

→ 민간신앙, 기우제, 산신제, 기타 종교 등

> 마을유물

→ 문화재 및 유물·유적, 건조물, 고문서, 농기구 및 민구 등

3. 마을역사 조사 세부내용

근·현대 역사자료

> 전설 및 설화

- 방언, 속담, 수수께끼, 금기어, 길조어 등
- 설화 및 전설, 무가, 민요 등

> 기관 및 시설물

- 관공서, 학교 및 교육기관, 복지 및 의료 시설, 도로, 교량 등의 공공시설
- 기업, 민간 연수원 및 교육시설, 종교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의 시설

> 근현대 마을사진

- 마을의 생활상, 마을의 역사 등을 담고 있는 사진

4. 연구진 및 자문전문가

연구진 및 외부 조사 전문가

구분	내부연구진	담당마을 (행정리수)	외부 조사 전문가	소속
전담 조사원	조영재 연구위원 (연구책임)	유량동(4)	-	-
		구룡동(3)	박창원 교수	충남도립대학교
		미죽리(2)		
		광덕리(4)	송 이 박사	충북대학교
	윤정미 연구위원	공간 DB 구축	-	-
	박경철 책임연구원	행암리(1)	정남수 교수	공주대학교
		도원리(3)		
		용두리(3)	-	-
	김기홍 책임연구원	은지리(1)	유보경 박사	충남대학교
		봉양리(4)		
		장산리(5)	-	-
	엄성준 연구원	동평리(3)	-	-

4. 연구진 및 자문전문가

외부 자문 전문가

구 분	성 명	소 속
자문전문가	홍제연 박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김준기 원장	동남구문화원
	이정우 (전)사무국장	(전)천안문화원
	김성열 실장	천안박물관 역사문화연구실
	임명순 선생	천안 향토사학자
	김종식 선생	천안 향토사학자
	조한필 부국장	충청타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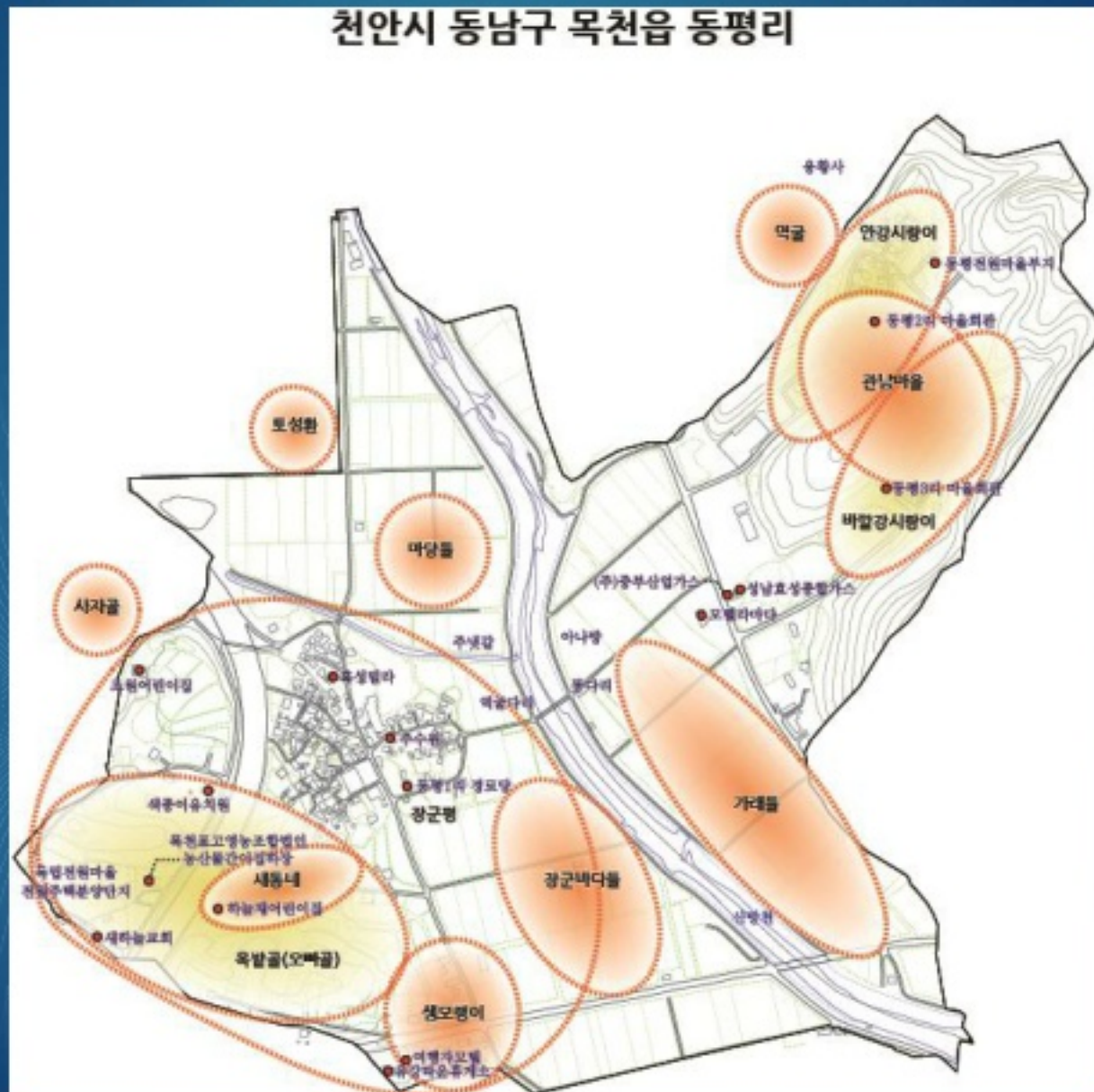
III

마을조사 결과

- | | | |
|------------|------------|--------------|
| 1. 목천읍 동평리 | 5. 성남면 봉양리 | 9. 동 면 행암리 |
| 2. 풍세면 미죽리 | 6. 수신면 장산리 | 10. 원성1동 유량동 |
| 3. 광덕면 광덕리 | 7. 병천면 도원리 | 11. 청룡동 구룡동 |
| 4. 북 면 은지리 | 8. 병천면 용두리 | |

1. 목천읍 동평리(東坪里)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리



1. 목천읍 동평리(東坪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명칭유래

... 행정구역 통폐합시 동리의 '동'자와 장군평의 '평'자에서 유래

> 마을유래

- ... 역골이라 불리는 골에서 다수의 기와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측
- ... 이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장군평에 동평리가 자리 잡게 됨
- ... 독립기념관 건립으로 1983년 이주자들이 정착한 관남마을이 새로 생김



1. 목천읍 동평리(東坪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마을지명

- **장군평(將軍坪)** : 고려 태조(백제 온조왕이라는 이야기도 있음)가 도읍을 정하기 위해 태조산에 올랐을 때 군사들을 집결해 둔 곳으로 장군들이 바다같이 많아 장군평이라고 불리게 됨
- **샘모랭이** : 장군평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산모퉁이에 샘이 있어 샘모랭이라고 함
- **관남(館南)마을** : 독립기념관 건립으로 이주하게 된 남화리와 신계리의 주민들이 정착한 강시랭이를 관남마을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관남'은 당시 천안군수가 독립기념관의 남쪽에 있다고 하여 관남이라고 작명하였다고 함
- **안강시랑이(동평2리), 바깥강시랑이(동평3리)**
- **장군바다들** : 옥발골 동쪽의 넓은 들
- **옥발골(오빠골)** : 장군평 서쪽에 있으며 예전 목천현의 옥터였다고 하며, 현재는 새동네라는 거주지가 생김



1. 목천읍 동평리(東坪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동평2·3리 이주과정

- ... 1982년 10월 5일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및 건립 추진 시작, 1983년 8월 15일 기공식. 이주는 1982년 6월~7월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고, 당시 남화리의 65~70가구 중 추첨을 통해 27가구가 택지 분양을 받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조성. 남화리는 동평2리, 신계리는 동평3리로 이주
- ... 지정 이주지 이외의 이주자에게는 당시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하고, 토지보상비는 당시 시세의 2배 정도를 지급하였으나 인근 토지시세 상승폭이 더 높아 대토가 불가능하였다고 함.
- ... 이주과정에서 남화리는 독립기념관 건립 관계자와 마찰이 심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신계리는 무난하게 받아들였다고 함



1. 목천읍 동평리(東坪里)

근·현대 역사자료

> 자연 및 경관



- ... **동평3리 느티나무** : 1986년 동평3로 이전하면서 기념식수한 1986년 3월 13일생의 느티나무와, 신계리 송말에 있던 느티나무를 동평3리로 이식한 1972년 3월 12일생 느티나무가 있음

> 마을인물



- ... **故이천웅·이연하 선생** : 자식이 없이 작고하면서 본인들의 재산을 동평1리에 기증하였고, 매년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음

> 마을유물



- ... **우물터** : 동평1리에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 이용했던 5개 우물이 있었음. 현재는 5개 중 4개의 터만 남아있음
- ... **방앗간** : 1966년에 조성된 방앗간이 남아있고, 현재는 방앗간 주인만 사용하고 있다고 함

1. 목천읍 동평리(東坪里)

근·현대 역사자료

> 전설 및 설화

- **도둑 감복시킨 홍기섭** : 가난한 선비 홍기섭(洪耆燮, 1781~1866)이 청렴한 성품으로 집에 들어온 도둑까지 감복시켜 개과천선하게 하였다는 이야기
- **느티나무 귀신** : 남화리에는 수령이 수백 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3그루 있었는데 기념관을 건립하며 남화리의 이 느티나무를 기념관에 이식(사직단 터)하려고 했으나 모두 고사하였고, 이후 기념관 건립이 거의 끝나가던 때에 기념관에 화재가 발생해 준공이 1년 미뤄지게 되었는데 이 불이 느티나무 귀신이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음
- **고양이 바위 전설** : 옛날 남화리는 동평리보다 더 부촌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시주승이 시주를 하러 남화리에 들렀는데 남화리 주민이 이를 거절하고 쫓아내자 시주승이 흑성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마을의 정기를 지켜주던 고양이 바위의 머리를 잘라버렸다고 한다. 이후 남화리의 정기가 떨어져 지금처럼 원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전설임

2. 풍세면 미죽리(美竹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명칭유래

-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때 대상 지역인 토정리(土井里)와 웅리(熊里)에 고운 대나무가 있다고 하여 미죽리(美竹里)라 부른 데서 붙여진 이름임

> 마을유래

- 마을시조로는 초기에 한산(韓山) 이씨(李氏)인 이수삼(李水三)과 밀양(密陽) 박씨(朴氏) 박재도(朴載道, 1748-1820)로 볼 수 있으며, 약 40에서 50년 이상의 차이로 이수삼이 먼저 미죽리에 들어온 것으로 보임
- 이수삼은 이수삼은 인제공파로서 관직을 지냈으며, 박재도는 정3품(通政大夫)을 지내고 낙향을 지낸 뒤 소정리(小井里) 대사동(大寺洞) 한작골(연기, 옛천안지역)에 귀향했다고 함



2. 풍세면 미죽리(美竹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마을지명

- **곰직이(웅촌, 웅리(熊里))** : 미죽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옛날에 뒷산에서 곰이 살아서 곰직이라 하였다고 하기도하며 고운 대나무(美竹)가 있어서 곰직이라 하였다고 함. 고운죽 → 고운직이 → 곰직이
- **납안들** : 웅리 남쪽은 넓은 들
- **개무데미** : 납안들 앞들 가운데 있는 작은 산으로 개골물은 묘가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개무덤이 있다고 전해옴
- **부엉박골** : 텃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에 부엉 바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고, 현재는 엘지산업단지가 들어와 사라졌다.
- **장재울(장개울)** : 토우물 북쪽의 골짜기로 아주 부자가 살았다고 하여 불림
- **홀아비골, 과부골** : 과부골은 토우물과 용척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며, 과부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가 홀애비골이라 함



2. 풍세면 미죽리(美竹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인물

- **김태권, 김의권 형제** : 김태권(1886)은 미죽초등학교가 생기기 전에 설립된 민족 학교인 영미의숙의 공동설립자로서 민족애국 독립 정신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김의권은 붓글씨가 뛰어났고 손자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 성환목장 원장을 지냄
- **김형래, 김형백 형제** : 김형래는 당시 명문 예산농고 출신으로 학교내의 친일 연극부와 연극 내용으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일경에 의해 학생들이 대거 검거되고, 김형래의 동생들은 형이 억울하다고 하여 좌익의 편에서 활동을 하다가 김형래, 김형백 형제는 6.25때 처형됨. 1994년에 예산농고의 후신인 공주대학교 산업대학교에서 김형래 등 9명의 제적생들의 명예졸업장 수여한바 있음
- **역사학자 임종국** : 임종국은 친일역사규명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을 위해 연구진을 모으던 중 돌아가셨다. 그의 첫 저서는 친일문학론이다. 그는 생전에 총 12권짜리 <친일파 총사>라는 책을 집필하였으나 뜻을 다 이루지 못했고 15000여점의 친일 사료를 조사하여 남김



2. 풍세면 미죽리(美竹里)

근·현대 역사자료

▶ 풍속 및 마을사건

- ... **노인자제 삼형제 벗을 못한다**: 노인 자식인 경우에 노인자제를 대우하느라 막 내인데도 삼형제가 벗을 못한다고 한다. 그것은 같은 항렬이 차이가 나지만 나이는 같은 친인척 간의 위계를 잡기 위한 말로 해석됨
- ... **탁아소 개설**: 1934년 6월 21일 미죽리에 탁아소가 개설됨

마음관행

- ▶ **성황당** : 최 씨의 부인인 할머니 무당이 있었고, 개별적으로 집에 우환이 있을 때 성황당에 와서 시루떡을 해놓고 제사를 지냈으나, 8.15 해방 후 하천을 정비하면서 없어짐
- ▶ **장승제** : 천하대장군이라고 새긴 장승이 있었고, 돌림병이 올 때 장승제를 지냄

> 마을유물

- ... 물레방아 : 마을에 5개의 물레방아가 있었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짐
 ... 상여 : 15년 전까지 상여를 사용했고, 상여는 동네에서 추념해서 장만하거나 돈 많은 집에서는 초상 시 새로 만들어 쓰고 동네에 기증함. 가장 최근에는 장상근 씨의 부친 장우현씨가 관리자였음

2. 풍세면 미죽리(美竹里)

근·현대 역사자료

> 전설 및 설화

- **이정선씨 죽은 이야기** : 이정선 씨는 홍수에 뚝이 터지자 자신의 논이 버릴까 걱정되어 세 아름 되는 버드나무를 베어 뚝에 대놓았는데 나무를 베 후 집으로 돌아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고, 이는 나무에서 가스가 나와 그것을 마셔서 죽었다고 알려짐

> 기관 및 시설

- **영미의숙(寧美義塾)** : 미죽리에 학교가 설립된 것은 1909년 영미의숙이 최초임. 영미의숙의 이름은 천안의 별칭인 영성과 미죽리의 앞 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고,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설립되었고, 1915년 영미학교로 개칭되었으나 극도의 재정난과 일본국가의 제창, 일본인 선생의 기용 등을 강요 받아 1915년 4월 폐교됨
- **영진학교** : 1935년도 5월 22일 영미학교의 설립자인 이명룡의 처제인 양근환 여사가 기부금 2000원을 기부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동래 유지 이명용 씨가 전 동민이교실을 건축하여 간이교인 2년제 영진학교를 설립함. 그 뒤 간이보통학교를 8회를 지속하다 뒤에 미죽초등학교로 발전함

2. 풍세면 미죽리(美竹里)

근·현대 마을사진



3. 광덕면 광덕리(廣德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명칭유래

-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때 대상지인 수철리, 대거리, 내산리, 곡도치, 안심대, 목과동, 검단리, 어인동, 만복동 일대에 있는 광덕산의 이름을 따서 광덕리(廣德里)라고 함

> 마을유래

- 광덕1리 : 상사 상사 → 국사동 → 댕거리 → 상사 및 해수로 되었다가 지금은 광덕 1리로 됨
- 광덕2리 : 국사동(國師洞)이라는 명칭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과거 이 지역에 유명한 국사(國師, 신라·고려 시대에 있었던 승려의 최고법계)가 살아서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함. 수천리는 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댕거리는 분구가 되면서 하검이 되었다가 다시 분구가 되어서 죽계, 하검이 되었고 두 개 합쳐서 광덕 2리가 됨
- 광덕3리 : 1914년 이전에는 62가구로 그 당시에는 벼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굉장히 큰 동네였고, 그 당시에는 천안 원일면 댕거리라는 곳임
- 광덕4리 : 만복동은 만 가지 복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의미로 수 백년 전부터 만복동이라고 불렸고, 과거 천안군 원일면이었다가 천안시 광덕면이 됨

3. 광덕면 광덕리(廣德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마을성씨

- 1리 : 과거 밀양 박씨, 경주 김씨의 집성촌이었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임
- 2리 : 주로 정씨가 많이 거주하였으나, 집성촌을 이루지는 않고 현재는 다양함
- 3리 : 류씨 집성촌으로 자손들이 많이 살았으나, 현재는 3가구가 거주함
- 4리 : 우씨 집성촌으로, 현재도 우씨 후손이 일부 거주하고 있음

> 마을지명

- **곰푸리(웅초동, 熊草洞)** : 웅초동이라고도 하며 광덕사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곰이 풀을 뜯어 먹었다 함
- **검단이(검단리, 검단(檢丹))** :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풍수지리 명당이 있다고 함
- **대거리(垚巨里)** : 광덕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대나무가 많았으며 대장간이 있었다고 함. 이 부락에 의병들이 많이 있어 일본군들이 의병을 소탕하기 위하여 온 동네에 불을 놓아 49여 호가 불에 탔다고 한함. 과거에 주막이 열 두 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함. 호두장수 등 돈을 가지고 마을에 오면 다 잃고 나간다는 속설이 있으

3. 광덕면 광덕리(廣德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마을지명

- **안심터(안심대, 안대, 安垔)** : 검단이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골짜기가 아늑하여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이라도 안심하고 살터라고 함
- **만복(萬福)골(만복동)** : 노루목 동쪽에 있는 마을로 만복사가 있었다고 함
- **해사동(海寺洞)** : 곰पुर리 북쪽에 있는 마을 해사암(海寺庵)이 있었다고 함
- **의병매장터** : 일병들이 의병을 붙잡아 생매장 하였는데 일인들이 떠난 후 부락민들이 속히 파내어 한사람은 살았다고 함. 일인들이 이것을 알고 동네에 저녁에 불을 놓았는데 온 동네 40여호가 불타 버렸고 지금도 부락내에서 쌀탄재가 나온다고 함
- **허리빋날(허리빈날)** : (전설) 중국의 이여송이가 임진왜란 때 이곳에 와서 보고 큰 인물이 나와 앞으로 중국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하며 인물이 못나오게 하려면 산혈을 잘라야 한다고 했는데 이곳의 산허리를 잘랐다 하여 허리빋날이라고 전해온다
- **점촌, 점말** : 점촌, 점말 : 마을이 있었는데 불이 자주나 폐동이 되었다고 함
- **장고개** : 아산 온양장 보러 넘어다니던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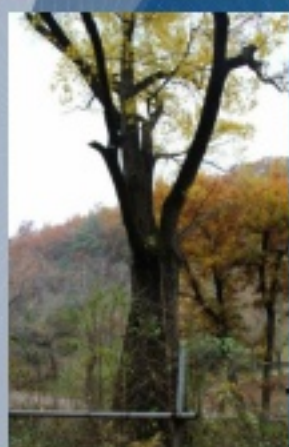
3. 광덕면 광덕리(廣德里)

근·현대 역사자료

> 자연 및 경관



→ 은행나무(보호수, 고유번호 8-27, 지정일자:1982.11.1., 수령:550년, 수고18m, 둘레:4.4m, 광덕사에서 관리) : 광덕사 대웅전으로 들어가기 전 옆쪽길 따라 올라가는 위치



→ 느티나무(보호수, 고유번호 8-17-342, 지정일자:1982.11.1., 수령:4400년, 수고20m, 둘레:5.5m, 광덕사에서 관리) : 광덕사 안내판을 지나 안양암 입구 직전에 위치

> 마을인물

→ 업인도 스님 : 안양암 흥성탁 스님 은사님의 은사님으로 본인의 사비로 현재 보선암초등학교 부지를 기부하였고, 과거 마을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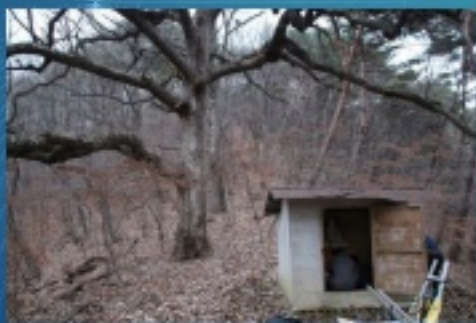
→ 유청신 : 정확한 출생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흥유씨세보(高興柳氏世譜)』에 따르면 고종대 후반에 출생하여 원종 15년경에 잡과에 급제한 후 통역관에 임명된 것으로 보임. 1290년(고려 충렬왕 16년) 9월 원나라에 갔다가 임금을 모시고 돌아올 때 어린나무와 열매를 가지고 와서 묘목은 광덕사에 심고, 호두는 집에 파종했는데 그때 묘목이 자란 것이라고 알려지나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음

3. 광덕면 광덕리(廣德里)

근·현대 역사자료

> 제사문화

- 광덕1리: 과거에 정월 초하루날이나 초이튿날 산신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매년 음력으로 10월 그믐날 산신제를 지내고 있음. 옛날에는 장성제와 탐제를 모두 지냈지만 현재는 산신제만 남아있음
- 광덕2리: 현재 하검에서 산신제, 장성제, 탐제를 지내고, 죽계에서 산신제를 지냄
- 광덕3리: 은골에서는 제사가 있었고, 노루목에서는 산신제를 지냈는데 노루목에 집이 많이 없어서 제사가 크지 않았다고 함
- 광덕4리: 마을 뒷산 중턱에서 음력 정월 초나흘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



3. 광덕면 광덕리(廣德里)

근·현대 역사자료

> 공동체 문화

- ... 과거에는 정월대보름이면 여기 앞에서 짚으로 동아줄을 매서 보름날 줄다리기를 했으나 6.25 후부터 없어졌다고 함
- ... 단오때는 단오때는 느티나무에 그네를 걸어 뛰기도 하고 봄에 화리(동네 사람들 모두 모여서 술 먹고 즐기는 일)를 하였으며, 칠월칠석날 사월 초파일날 풍물치고 놀았다고 한다.
- ... 선왕제 : 개인이 느티나무에 제사를 지내(과거에 여러 사람이 지냈었음)는 것으로 음력 7월 7일에는 칠석놀이로 돼지를 잡아 준비하고 풍물놀이를 하였고, '농민의 생일'이라고도 불렀던 마을잔치였다고 함
- ... 풍물놀이 : 광덕 4리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풍물, 사물놀이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없어 계승되지 못하고 있음

3. 광덕면 광덕리(廣德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유물

- 광덕사(廣德寺) :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천축국에서 전래한 부처님사리, 치아, 가사, 화엄경 등을 전수받아 창건하고 흥덕왕 7년(832년) 진산조사(珍山祖師)에 의해, 중창, 대가람으로 계승 됨.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임난 직후에 중건하였으며, 광덕사부도(廣德寺浮屠)(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85호), 광덕사대웅전(廣德寺大雄殿)(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246호), 광덕사삼층석탑(廣德寺三層石塔)(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0호) 등 다수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음
- 이 외에 김부용 묘와 김이양 묘, 유청신 신도비, 그리고 돌절구, 쟁기 등의 민속 유물을 보유하고 있음



3. 광덕면 광덕리(廣德里)

근·현대 마을사진



4. 북면 은지리(銀芝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명칭유래

- 1914년 행정구역 개편당시 채동리, 은석리, 동지리를 통합하면서 '은'과 '지'를 따서 은지리라 함

> 마을유래

- 채동에는 처음 채 씨들이 살았다고 함. 이 마을의 채씨들은 재산이 많아 마을에서 세력을 누렸다가, 점차 채씨들의 세력이 쇠하여 하나 둘씩 마을을 나가고 무송 유씨가 이 마을에 세거함
- 오늘날 채동에서의 유씨는 과거에 비해 수가 줄었지만 아직도 채동 전체 가구수의 절반이 넘음
- 은석리에는 고령 박씨 뿐 아니라 정씨(나주 정씨), 김씨(광산 김씨?)등이 함께 거주하였고 나주 정씨들이 오랫동안 고령 박씨의 전답을 부치며 살았으나, 오늘날 고령 박씨 소유의 땅은 재실을 포함하여 1000평에 불과함
- 은지리 내의 자연마을은 은석골, 채동, 신촌말, 생태전원마을로 구분됨



4. 북면 은지리(銀芝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마을지명

- **은석골(은석리)** : 부르는데 은석사 밑에 있는 마을로 고종때 참판 박봉빈(朴鳳彬)이 살았다고 함
- **채동** : 은석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고려시대 이곳에 채 정승이 살았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임. 채동이 은지리에 있던 원래의 마을이었다면 신촌말은 새롭게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로 유래된 지명이고, 주민에 따르면 신촌말은 이조중업 찜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함
- **통미** : 은지리와 비룡사의 들에 있는 외딴 산으로 통째로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임. 전해 내려오는 '은지리의 통미전설'에서는 안성에 큰 장마가 저서 홍수가 나는 통에 통미가 떠내려 오다가 물이 빠지면서 목천 은지리에 걸치면서 멈추었다고 함
- **신촌말** : 채동 서쪽에 새로 조성된 작은 마을
- **윗장 고개와 아랫장 고개** : 은석리에서 은석산을 타고 병천장으로 가는 길 위쪽에 위치하여 웃장 고개라 하고 아래쪽을 아랫장 고개라 불림

4. 북면 은지리(銀芝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민속 및 공동체



- **채동의 당산제** : 마을회관이 현재 장소로 이전하면서부터(약 20여 년 전) 정자 나무 수호신에게 제를 지내기 시작함. 북어와 실타래는 나무에 매달고 햅쌀로 빚은 떡과 삼색과실, 술(막걸리)을 제물로 차리고 술을 따른 후 절을 하고 나무 근처를 돌면서 동서남북에 이것을 조금씩 뿌림
- **은석리의 마을제사** : 은석골에서 마을 행사의 하나로 음력 10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 예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후손을 보지 못한 한 노부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당한 규모의 전답을 모두 마을에 회사하고 제를 지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들을 위한 제사가 오늘날까지 10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음
- **어사 박문수 제사** : 어사 박문수 제삿날(음력 9.9)에는 군수를 비롯하여 경찰서장 등 지역의 기관장과 고령 박씨 종중,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대하게 마을잔치를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박씨 종중들만 참여하여 재실에서 단출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음

4. 북면 은지리(銀芝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유물

- **박문수 묘(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261호)** : 은석산 정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박문수 집안은 원래 황해도 장단에 세거하였으나 박 어사가 공신전으로 천안 북면 일대 땅을 받게 돼 이곳에 그의 묘가 들어서게 된 것이라고 전해짐
- **고령박씨 종중재실(문화재자료 제289호)** : 박문수 묘소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재실은(북면 박문수길 149-1) 암행어사로 많은 일화를 남긴 박문수(1691~1756)의 제사를 모시는 곳으로 이 건물은 1932년에 세웠는데, 1990년에 새로 재실을 지음
- **박문수 어사 신도비** : 북면 은지리의 재실 옆에 2009년 11월 27일에 신도비가 세워짐. 신도비는 오석으로 거북 묘형의 좌대에 높이 2.4m, 넓이 0.9m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박 어사의 정의롭고 청렴했던 생애와 업적 등을 소개하고 있음
- **은석사(銀石寺)** : 은석산(455.7m)의 8부 능선에 자리잡고 있는 이 사찰은 신라 문무왕 때의 고승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지만 확실하지 않음. 은석사에는 아미타극락도(충남 문화재 자료 제392호), 목조여래좌상(충남 유형문화재 제179호)가 소장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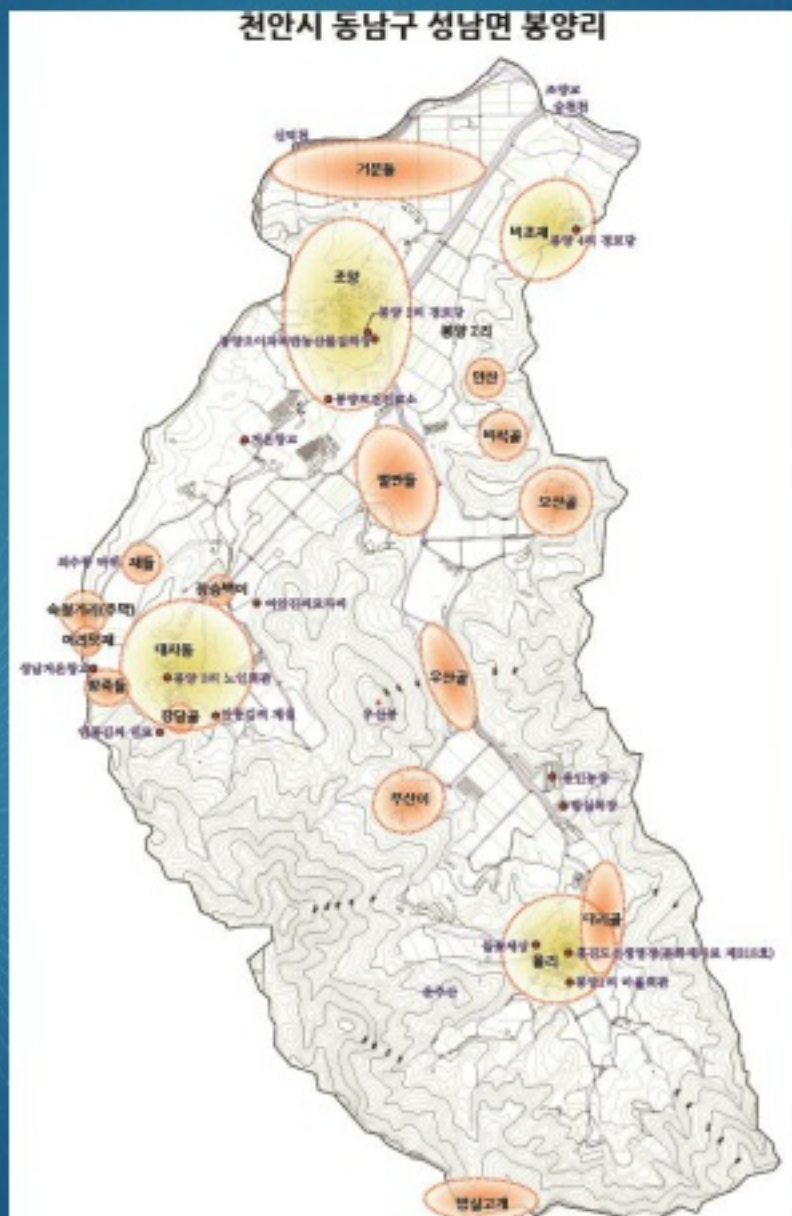


4. 북면 은지리(銀芝里)

근·현대 마을사진



5. 성남면 봉양리(鳳陽里)



5. 성남면 봉양리(鳳陽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명칭유래

-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 조양리, 봉학리, 대사동, 울리, 수신면 봉서리의 일부를 통합하면서 '봉'자가 있는 마을의 '봉'자와 조양리의 '양'자를 따서 봉양리(鳳陽理)라 함

> 마을유래

- 고려시대 말경 봉양리에 많은 사람들이 집거하였던 곳으로 추측되며, 모산골과 밤실 일부는 장터였고 대사동은 집터였다고 함. 경지정리를 할 때 마을의 논 가운데서 집터였던 흔적들이 상당한 정도로 발견되었고, 많은 기왓장들이 출토되어 근처에 기와공장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됨
- 비조재(현재의 봉양4리와 수신면의 해정3리)에 새의 양 날개의 중심에 발이 있는데 다량의 기왓장과 그릇 등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곳에 거상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됨
- 대사동은 마을 형성 초기에 '진씨(여양 진)'가 입향하여 살았다고 전해지나 진씨들이 이 마을에 오랫동안 세거하지는 못함. 오늘날 여양 진씨는 많지 않고(2호에 불과) 곽, 임, 염 등 각성이 어울려 살고 있음
- 비조재에는 임씨(전의 임씨)가 많은 편임. 이들 역시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오늘날에도 비조재 마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5. 성남면 봉양리(鳳陽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지명유래

- ... 율리(栗里, 밤실) : 마을의 주산인 우산봉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로 밤나무가 많아서 유래된 지명임
- ... 조양(朝陽, 도랑리) : 살기 좋고 별이 좋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조양이라는 이름은 조선 선조 때 토정(土亭) 이지함이 인근의 봉황산 밑에 세운 조양정(朝陽亭)이라는 정자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함. 마을 남쪽으로 도랑이 있어서 도랑리라고도 하며, 봉양리에서는 가장 먼저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함
- ... 대사동(大寺洞) : 한절루(한저루)라고도 부르며 이 지명은 이 마을에 만 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기거하였고 사람들이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4층 석탑이 있는 큰 절이 있어서 유래된 것임
- ... 어리밋재 : 봉양리 남서쪽 경계부 40여 미터 높이에 있었던 고개로 충북 진천에서 목천을 거쳐 공주로 갈 때 경유하는 고개 길로 겨울에 눈이 내리면 늦게까지 얼음이 녹지 않아서 유래한 지명임
- ... 가마골 : 어리밋재로 가기 전 갈림 길 근처로 주막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사람들은 이곳을 '숙청(宿請)거리'라고 불렀으나 오늘날 이곳의 흔적은 사라짐



5. 성남면 봉양리(鳳陽里)

근·현대 역사자료

> 자연 및 경관

- ... **들꽃세상**: 봉양1리 마을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조성하기 시작한 식물원으로 우리나라 야생화를 모아 놓은 곳임

> 마을민속 및 공동체

- ... **밤실산신제**: 산신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산제당이 처음에 초가였다가 기와로 엮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최소 100여 년 전부터 이루어져 온 것으로 추정됨
- ... **대사동 장승제**: 대사동의 중요한 전통으로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4일)에 이루어지는 장승제가 있음. 18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270년 정도 이어져온 것으로 전해지며, 아랫동네인 봉양2리(조양)의 풍흉에 따라 대사동 마을이 그 반대로 되어서 이를 막고자 느티나무를 심고 장승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고 함
- ... **뚝방제**: 과거 조양(도랑리)에서는 홍수의 피해를 덜기 위한 목적으로 뚝방제를 지냈다고 함. 오늘날에는 지속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마을 앞으로 흐르던 물길을 바꾸면서 수해의 위험에서 일정하게 벗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5. 성남면 봉양리(鳳陽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유물

- ... 남양홍씨 홍진도(洪振道) 선생의 영정(影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18호) : 홍진도 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은 홍진도 선생의 13대 후손(?)인 홍중화의 자택 옆에 위치해 있고 그가 사당을 관리하고 있음. 홍진도 선생은 인조대왕 때 혁명을 일으킨 3대 공신으로 책봉 받아 판중추부사를 지낸 인물임
- ... 봉양리 사지석탑: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으로 대사동, 안동 김씨 사당 뒤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과수원이 들어서 사지의 흔적은 찾기 힘들지만 석탑재가 남아있고, 마치 지대석 같은 큰 암반위에 옥신석과 옥개석이 남아있음
- ... 대사동 석탑: 과거 큰 절 입구에 큰 석탑이 있었고, 스님이 만여 명이나 있었으며 3층 또는 5층 석탑이 있었는데 비가 오면 사람이 피 할 수 있었다고 함. 이 석탑으로 인해 대사동이라는 이름이 생김. 통일신라와 고려 초의 양식으로 보이는 이 석탑은 현재 아래 부분만 있으며 근처에 있던 것을 현재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이며 일부 부재들은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지을 적에 가져다 사용했다 함

5. 성남면 봉양리(鳳陽里)

근·현대 마을사진



6. 수신면 장산리(長山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명칭유래

-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때 장명리의 '장' 자와 남산리의 '산' 자를 장산리(長山里)라 부른 데서 붙여짐

> 마을유래

- 장산리의 **장명마을**은 수신면 17개 부락 중에서 가장 큰 마을로 조선시대에 성 환도찰방에 해당하는 장명역이 있어 붙여진 이름임. 장명은 장명은 수촌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하천의 가장 아래 줄기에 해당하여 물의 범람이 많은 지역이라 불린 다른 이름임. 장명마을은 1907년 대홍수로 마을의 많은 부분이 쓸려 내려갔다고 함
- 남산에는 방죽과 양반이 타던 말총이 있었다고 하며, 1976~1977년경에 천안시 최초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이루어진 곳임
- **점촌(점말, 증말)**은 1970년대까지는 옹기그릇을 만드는 옹기촌으로 유명하여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여 한때 100호를 넘는 세대가 살았다고 함
- **황골(항골)**은 1980년대 상록리조트가 들어오면서 마을의 대부분이 사라짐

6. 수신면 장산리(長山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마을지명

- **장명(長命)** : 조선시대 청주목 수신면에 속하던 곳으로 장명과 꽃대라고 불리는 큰 마을이었음. 장명이라는 이름은 이름은 영조 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마을의 큰 산인 바리박산의 자락이 매우 길다 하여 '산이 길다' 라는 의미에서 장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도 함
- **남산(南山)** : 장산리의 가장 큰 마을인 장명 쪽에서 봤을 때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남산이라 불려짐
- **기미뿔(귀미뿔, 구미뿔, 龜尾坪)** : 약 400년 전인 조선시대 이전부터 불려온 구미뿔(龜尾坪)이라는 이름의 한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북이 형상이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해짐
- **우각(牛角)골** : 마을 지형이 소뿔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짐
- **점촌(店村 점말, 즈말)** : 마을에서 항아리를 굽는 일이 유명하여 이름 붙여짐
- **솔안** : 소나무 안쪽 마을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고,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는 소란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음
- **질구말** : 진흙땅으로써 비가 많이 오면 질퍼져서 붙여진 이름
- **쇠죽골** : 우죽골 서지동이라고도 하며 질구마루 북동쪽에 있는 골. 와우형의 명당이 있다고 하며 철의 생산지이기도 함

6. 수신면 장산리(長山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민속 및 공동체

- **장명의 산신제** : 거리제와 함께 그 역사가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명에서 산신제가 시작된 것은 조선시대로 전해지며 매년 길일을 받아서 행해지기 때문에 날짜는 다르지만 음력 10월에 택일하여 지냈으며, 주로 12월 하순 경에 이루어지고 있음
- **거리제** :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가 세 군데가 있는데, 각 입구에 있는 첫 번째 집에서 주관하여 마을 어귀에서 거리제를 오래 동안 지내왔으나 5년 전부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우각골과 점골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산신제가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없어짐
- 남산에서도 남산에서도 성황(城隍)나무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마을 제를 지내기도 했으나 현재는 성황(서낭)나무 터에서 개인적으로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당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미뜰에서는 **성황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력 1월 13~14일경 수신면 만경사에서 보름 전에 하루를 길일로 잡아주고 행해지게 됨

6. 수신면 장산리(長山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유물



→ **홍대용(洪大容) 생가지**(문화재 자료 제349호) : 1996년 2월에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주춧돌만 남아있고 주변에 잔디를 심는 등 부분적으로 정비해 놓은 상태임.

→ **홍대용 묘역**(도지정 기념물 제101호) : 귀미뜰에 위치해 있으며 병천면 사거리에서 693번 지방도를 따라 상록리조트 방면으로 약 1km 지점의 서쪽 구릉지에 위치. 신도비는 없으며 묘비, 망주석, 상석 등이 배치되어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소박한 면모를 보여줌



→ **석불입상과 석비** : 장명 마을 입구에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석불입상(문화재 자료 356호)과 석비가 남아 있음. 석불입상은 마에불과 좌불이 있었는데 좌불은 도둑맞게 되어 터만 남아 있음. 고려 때의 불상으로 추정되는 이 미륵은 수신면 장산리의 수호신으로써 해마다 당제를 지내며 모셔오는 석불이며,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에 의해 코 부분은 마을 아낙들이 떼어다 대려 먹어 없어져서, 시멘트로 복원한 상태임

6. 수신면 장산리(長山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유물

- **장명석탑** : 장명의 논 한가운데에서 발견된 탑배미로 추정되는 곳에서 석탑이 발견되어 현재의 노인회관에 옮겨 보관중임. 기단부가 발견되지 않고 두 가지의 다른 재질의 부재를 섞어 쌓아놓은 것으로 여겨져서 문화재로까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점촌 옹기마을** : 점촌에는 두 곳에 옹기를 굽는 가마가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30년 전까지 운영되었고 다른 하나는 20년 전까지 운영되었다. 옹기를 구워내던 규모가 큰 폐가마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음
- **칠성바위** : 귀미뜰에는 7개의 칠성바위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마을에 2~3개 남아 있었으나 도로를 새로 개설하게 되면서 지금은 없어졌음
- **상여집** : 예전에는 마을마다 상여집이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없어졌으며 귀미뜰에만 100년 넘는 상여집이 아직도 남아 있음. 10년 전까지 마을에서 일어나는 장례 때에 상여를 이용하였다고 함



6. 수신면 장산리(長山里)

근·현대 역사자료

> 전설 및 설화

- 장산리 지명 관련 전설 : 이전의 이름인 간성읍 원님의 못된 행실 때문에 폐읍된 이후에 장산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함
- 우각골에는 자연동굴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안에서 송아지 울음소리가 나기도 한다고 전해지고 있음

> 기관 및 시설

- **홍대용 과학관** : 천안 홍대용 과학관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서길 113에 위치하며 장산1리 입구의 우측 산등성에 들어서 있음. 2014년 5월 29일에 개관하였고, 부지면적은 13,907m²으로 건축연면적 3,443m²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주요시설로는 천체투영관(15m 원형돔)과 주관측실(80mm 망원경),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다목적강당 등이 있음



6. 수신면 장산리(長山里)

근·현대 마을사진



7. 병천면 도원리(桃源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명칭유래

- 평기(平基), 도원(桃源), 광기(廣基), 덕신(德新), 가정(柯亭), 반계(磻溪), 명암리(鳴岩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도원의 역사와 미명(美名)을 존중하여 도원리라 함

> 마을유래

- 도원(桃源)골은 김만중(金萬重)이 병자호란의 강화(講和)에 반대하여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이곳에 와서 살면서 중국 진나라 사람들이 도원으로 피난한 것에 비유하여, 호를 도원(桃源)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도원이라 한 데서 유래
- 반계(磻溪)는 1597년에 청주 한씨 파조가 조상들의 유지를 가지고 도원 3리로 이주 한 곳이라고 함
- 면실(勉實)은 벌말, 평기, 도원골 아래 벌판이 있는 마을이며 숙종 때 학자 김일우가 처음 터를 잡아 살면서 실학에 힘쓰라는 뜻에 면실이라 함



7. 병천면 도원리(桃源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마을지명

- **박동막골** : 아이를 낳다 아이가 죽으면 천에 쌓아 박동막골 나무에 걸어 놓았다고 하며, 다른 말로 애장터라고도 불렀음
- **삼막골** : 산삼이 많이 자랐다는 산으로, 이 산은 외부인들을 오지 못하게 했으며 마을 아이들이 나무를 하러 삼막골로 많이 다녔다고 함
- **광터골(광기, 廣基)** : 도원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구리성에 웅거 할 때 이곳에 관을 두었으므로 관터 골이라하던 것이 변하여 광터 골 또는 광기가 되었다고 함
- **심방골** : 작성산성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 한 명이 땅을 빌려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대신 마을의 제사를 도맡아 지냈다고 전해짐
- **번재울(반계, 礮溪)** : 벌터 서북쪽 골에 있는 마을로, 선조 때 학자 한응남(韓應南)이 번재울에 살았는데 살면서 호를 반계(礮溪)라 함

7. 병천면 도원리(桃源里)

근·현대 역사자료

> 도원8경

- 제1경 명암(병풍바위) : 바위의 모양이 병풍처럼 생겼다고 하여 병풍바위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곳에 석굴이 있었다고 함. 전해내려 오는 속담에 의하면, 굴에 불을 때면 3일 만에 연기가 5리쯤의 작성산 봉에서 난다고 함
- 제2경 노은정 : 도원리 검개울 하천변(광기천 변)에 1689년(숙종 15)에 노은(老隱) 김상기(金相器)가 건립한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355호(1997년 지정) 천안 노은정(天安老隱亭)이 있음. 현재 노은정기(老隱亭記)현판이 남아있으며, 노은정기는 손자 김석범이 지었음
- 제3경 약수목탕 : 폭포수가 떨어지고 물이 맑고 깨끗하여 과거 양반들이 목욕을 즐겼다고 함. 현재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 하절기에는 물이 떨어짐
- 제4경 연암탄(벼루바위) : 바위가 매끄러우면서 반듯하여 벼루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임. 지금은 장마에 유실되어 볼 수가 없음



7. 병천면 도원리(桃源里)

근·현대 역사자료

> 도원8경



→ **제5경 백석탄**: 도원리 검개울 도원정 앞 느티나무 아래에 위치하고 글씨크기는 대략 45×50cm, 글자 폭은 약5cm 정도임. 냇가의 물이 회 돌아 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든 사람 들이 냇을 잃었다 하는 이곳은, 우암도 만동묘터를 구하러 다니던 중에 이곳에 들려, 그 멋스러움에 반하여 백석탄(白石灘)이라 글을 남겼다고 함

→ **제6경 구암**: 도원골 미륵당 서쪽에 있는 바위이며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구암(입바위)라고 함

→ **제7경 연구정**: 지나가던 선비들이나 학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연구 및 공부 하였던 장소라고 하며, 현재는 헐려져서 없고 그 자리만이 남아 있음



→ **제8경 천연미륵(미륵바위)**: 도원1리 마을 입구에 있는 키가 큰 바위로, 갓을 쓰고 있는 형상이며 예전에는 이 갓 위에다가 돌을 올려 떨어뜨리지 않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고 함

7. 병천면 도원리(桃源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민속 및 공동체

...> **미륵당이 미륵제** : 도원리에는 수호신으로 모시는 선돌형 미륵이 한 기 있으며, 매년 정월 초아흐렛날[음력 1월 9일] 마을의 부녀자들과 인근 사찰의 스님이 함께 미륵제를 지냄. 마을의 부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근 사찰의 스님이 제를 주관하여, 스님이 불경을 외고 묵탁을 두드리며 마을의 안녕과 각 가정의 무탈함을 축원해 줌

...> **강릉 김씨 능향제** : 강릉 김씨는 매년 음력 10월 10일 능향제를 지내며 강릉 김씨 삼괴당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냄. 제사를 지낼 때 도포를 입은 상태에서 제사가 진행되고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순서로 술을 올리게 되며 제사상의 차림 순서는 조율시(임금을 상징하는 대추, 3정승을 말하는 밤, 6판서를 상징하는 감)에 맞춰 올린다고 함



7. 병천면 도원리(桃源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유물

... **도영암(倒影岩)** : 삭성대 옆에 있는 바위. 바위가 비스듬히 서 있어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도영암 석자를 새겼다고 함

... **석상대(削成臺)** : 노은정 아래에 있는 바위를 깎아서 대를 만든 듯한 바위가 냇가에 있는데 우암 송시열이 삭성대 석자를 새겼다고 하며 지금은 땅속에 묻혀 있음

... **충효열문(강릉 김씨 3위 정려각)** : 강릉 김씨 김광열의 처 열녀 성씨와 아들 충효자 김철명, 후세의 효자 김도혁의 3위를 합한 정문으로, '강릉 김씨 효열 정문'으로도 불리며 천안시 향토유적 제19호로 지정되어 있음

... **도원동리비** : 도원골 입구에 있는 비. 작은 비에는 도원동리 대명천하(桃源洞裡大明天下)라 새겼고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우암 송시열선생의 글씨라 전해짐. 예전에 느티나무가 크기가 작아 비석이 있었으나 느티나무 뿌리가 크면서 기존의 비석이 부러져서 후손들이 탁본을 떠서 다시 비석을 세웠다고 함



7. 병천면 도원리(桃源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유물

- ... 반계 송남 유허비 : 반계 송남 선생 유허비는 반계 한응기, 송암 한응남 형제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
- ... 봉래선경(蓬萊仙境) : 도원리 구암산 중턱 입 바위 옆에 위치. 대략60×90cm 글자 폭 약 5cm정도. 봉래선경(蓬萊仙境)라 아주 큰 글씨가(90cm정도) 도원 김만중의 글씨로 추정되는데, 구암산 중턱에 있고, 도원 김만중(桃源 金萬重)이 이곳이 무릉도원이라 하며 썼다는 구전이 전래됨. 일부 학자는 구암선경(龜巖仙境)으로 해석하기도 함



7. 병천면 도원리(桃源里)

근·현대 마을사진



8. 병천면 용두리(龍頭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명칭유래

- 용두리는 원래 산에 대나무가 많아 죽림리(竹林里)라 하였는데, 조선 효종 때 학자인 류협(柳莢)의 묘를 쓰고 지형상 청룡의 머리가 되므로 용두(龍頭)로 불렀다 함

> 마을유래

- 용두리의 중심인 원 용두리는 한양 조씨 집성촌임. 한양 조씨는 원래 청원군 강래면 연정리가 고향이며 그곳에서 100년 전 공주를 거쳐 현재의 마을에 정착하게 됨
- 이 마을에는 한양 조씨의 선조인 정낭공 조명(趙銘) 선생이 이괄의 난 때 공을 세워 조정으로부터 하사 받은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로 이주했을 것이라고 봄
- 원래 용두리의 중심지역은 용두3리 지역이었고 지금은 2리는 냇물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해서 무드리(물들이)마을, 한자로는 水入마을이 있음



8. 병천면 용두리(龍頭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마을지명

- 지랭이(지령, 芝靈) : 현재 용두1리 지역으로, 원래 한자 이름은 地靈이었는데 지금은 지초 지(芝)자를 써서 芝靈으로 쓰고 있음
- 용두리(龍頭里) : 뒷동산의 산등이 용과 똑같이 생겼고 용의 머리부분이 되므로 용두리라 하였다고 함
- 만화동(晩華, 만마루, 만화촌, 분토동, 췌대배기, 효죽리) : 용두 건너편에 있는 마을
- 창들고개 : 창평리 호항령 만마루에서 병천면 탑원리 창들로 넘어가는 고개. 병목같이 생겼다하여 병목고개라고도 함
- 만마룻들(萬華坪) : 만마루 앞에 있는 들로 봄에 진달래꽃이 만개해서 만화리로도 불리웠고, 그전에는 만마루로 불림
- 무드리(수입, 水入) : 지령이 동쪽에 있는 마을. 개울이 마을을 돌아 흘러감
- 만화당(萬花堂) : 매헌(梅軒) 비(庇)가 만년에 분토동에 터를 잡고 나무와 꽃을 심고 만여권의 서책을 갖추고 서당을 열어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글을 가르쳐 만화당(萬花堂)이라 함

8. 병천면 용두리(龍頭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인물

-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음력 11월 17일)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나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울 시위에 참가했으며, 청신학교 김구응 선생과 함께 4월 1일 아우내 장날을 기하여 시위운동을 벌이다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 수감됨. 옥중에서도 제2의 만세를 전개했는데 이에 격분한 일제 헌병의 모진 고문으로 1920년 9월 28일 18세의 나이로 순국함
- **조인원(趙仁元: 1865~1932)**(조병옥 박사 부친) : 아우내 장터 만세 운동은 2개의 계열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조인원은 동면계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한 인물임
- **조병옥(趙炳玉: 1894년 ~ 1960년)** 박사 : 용두리에서 태어나 12살까지 고향에서 살았고, 1909년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해 박사학위를 취득함.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이후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의 일을 했으며, 조병옥 박사는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1960년 공천을 받아 대통령에 입후보했으나 신병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월터리드 육군병원에서 치료 중 병사함

8. 병천면 용두리(龍頭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민속 및 공동체

- **무드리 산신제** :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전에는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함. 옛날에는 도깨비가 많아서 도깨비장난을 없애기 위해 생겼다고 하며 산 밑에 주인이 거주하므로 부락의 안녕과 복을 산신에게 빌었다고 함

> 마을유물



- **청절사(淸節祠)** : 용두리 만화마을에 소재하며 어우당(於于堂) 류몽인 선생을 배향하기 위해 후손들이 근년에 소규모 사우로 세운 사당임. 류몽인 선생(1559~1623)의 자는 응문(應文), 시호는 의정(義貞)이며 어우당은 호임. 설화문학의 대가로 어우야담(於于野談)을 저술하였다. 문헌 설화집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지난 후 저술됨



- **매봉교회** : 매봉교회는 일찍이 선교사들이 들어와 세운 교회로 처음 이름은 '지령리 야소교당'이었음. 1898년 미국인 선교사 스웨러(W. C. Swearer, 1871~1916, 한국이름 徐元輔)에 의해 창립됨. 작은 마을에 들어선 매봉교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마을사람들은 일찍 개화하게 됨

8. 병천면 용두리(龍頭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유물



- 유관순 열사 생가 : 1919년 4월 1일 아우내 만세운동 당시 일본관헌들이 가옥과 헛간을 불태워 빈터만 남아 있는 것을 1962년에 충열비를 세우고 공원을 만들었으며 교회당을 짓고 관리사를 새로 세움. 1991년 12월 30일에는 대지 714㎡에 본채 및 부속사 등을 복함



- 조병옥 생가 : 1894년부터 1960년까지 조병옥이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 1995년 4월 20일 기와집으로 변형되어 있는 가옥을 문중의 고증을 받아 다시 현재의 초가집으로 복원함



- 유인석(유관순 동생) 거쳐지 : 교회 옆에 있는 기와집은 유관순 열사의 동생인 유인석이 살았던 집으로, 유인석은 이곳에서 두 번째 부인과 주막을 하면서 살았다고 함. 그러다가 해방 이후 남덕우 총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유인석 선생이 너무 초라한 초가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고 특별히 지시해 지은 기와집임
-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 시비 : 청절사 오른쪽에 어우 유몽인 시비가 있으며, 시비 앞면에는 유몽인 선생의 기상을 보여주는 대표 시가 있고 뒷면에는 유몽인 선생의 일생을 소개하는 글이 있음

8. 병천면 용두리(龍頭里)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유물

...> **매봉산과 3.1운동 유적지** : - 매봉산은 용두리와 탑원리 사이에 있는 산으로 3.1운동의 근거지가 되는 산임. 1977년 봉화대와 봉화탑을 건립하였고 매년 2월 말일 봉화제를 개최하여 유관순 열사와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있음. 병천면 탑원리 방향에는 유관순 열사 유적지가 있음. 본 유적지는 1969년부터 유적지를 조성하였으며 1972년에 추모각을 건립하였으며, 이후 유관순 열사 기념관과 기념비, 동상, 생가, 봉화탑, 추모각, 초혼묘, 추모시비 등을 건립함



8. 병천면 용두리(龍頭里)

근·현대 마을사진



9. 동면 행암리(杏岩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명칭유래

-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때 토복(土伏), 상행(上杏), 하행(下杏), 서지동(西芝洞)을 병합하고, 살구나무와 바위가 많아 행암리(杏岩里)[사루개]라 함

> 마을유래

- 최초 마을에는 마씨, 주씨, 조씨가 정착하여 마씨는 행암교회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조씨 밑으로 정착하였으며 주씨는 토복에 정착하였다고 함
- 이후 다양한 성씨들이 행암리에 들어와 살았다고 함



9. 동면 행암리(杏岩里)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명칭유래

- 청고개 : 모산에서 행암리로 넘가는 고개
- 소죽골(쇠죽골) : 행암리 마을회관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전에 소죽을 끓이던 장소라 소죽골이라 함
- 단지골 : 땅의 모양이 단지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함
- 도까말고개 : 옛날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기 위해 꼭 지나가던 길이었다고 함
- 바타니고개 : 바타니를 가기위한 고개로, 예전 바타니에는 나무들이 많아 이곳으로 마을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많이 다니던 고개라 함
- 사루개 : 행암리에는 살구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사루개라고 불렀다고 함
- 구름새미 : 행암리 마을회관 아래쪽으로 약 10m 떨어진 지역을 구름새미라 함



9. 동면 행암리(杏岩里)

근·현대 역사자료

> 자연 및 경관

- 보호수(느티나무) : 행암리 낙수암 옆에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420년 된 나무로써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음

> 마을민속 및 공동체

- 혼인계 : 옛날에는 식량이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하여 혼인을 한 집안에 쌀을 거두워 주었다고 함. 예를 들어 26명의 계원 중 한명이 혼인을 할 경우 25명의 집안에서 2말씩 쌀을 거두워 주었다고 하나, 현재는 없어짐
- 동계 : 동네계로 예전에는 동네에서 관리하는 쌀이 있었다고 함. 가난한 사람들이 이 쌀을 빌려가곤 하였는데 10말을 빌려가면 2말을 이자로 내었고, 이자로 받은 2말은 마을을 운영하는데 사용함



9. 동면 행암리(杏岩里)

근·현대 역사자료

> 장승백이 산신제와 장승제



- ... 과거 행암리에서는 해마다 정월 초가 되면 산제당에서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산신제를 마치면 마을로 내려와서 장승제를 지냈다고 함
- ... 산신제는 오래 전에 산지당골 사찰에서 지냈으며, 장승제는 마을 입구의 남자장승과 여자장승에게 드렸는데, 1980년대에 중단되었다고 함.

> 마을유물



- ... **낙수암(落水岩)**: 사루개 입구에 있는 바위. 큰 바위가 누워 있는 사이에 개울물이 폭포처럼 떨어지고 그 앞에 큰 느티나무가 서 있음. 서쪽 바위면에 새긴 낙수암(落水岩) 석자는 우암 송시열의 글씨라 하며, 그 옆에 오언절구(五言絶句)와 행암거사(杏岩居士) 주석영(周錫永)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 ... **낙수정(落水亭)**: 낙수정은 1974년 지역 출신 유지와 마을 주민들이 건립한 정자이며 낙수정 아래 우암 송시열 선생이 썼다는 낙수암의 이름을 빌려 낙수정이라 함
- ... **행암바위**: 낙수암 위쪽에 있는 바위로, 넓적하게 부채같이 서있는데 앞면에 행암(杏岩)이란 두 글자를 새겨 놓음



9. 동면 행암리(杏岩里)

근·현대 역사자료

> 전설 및 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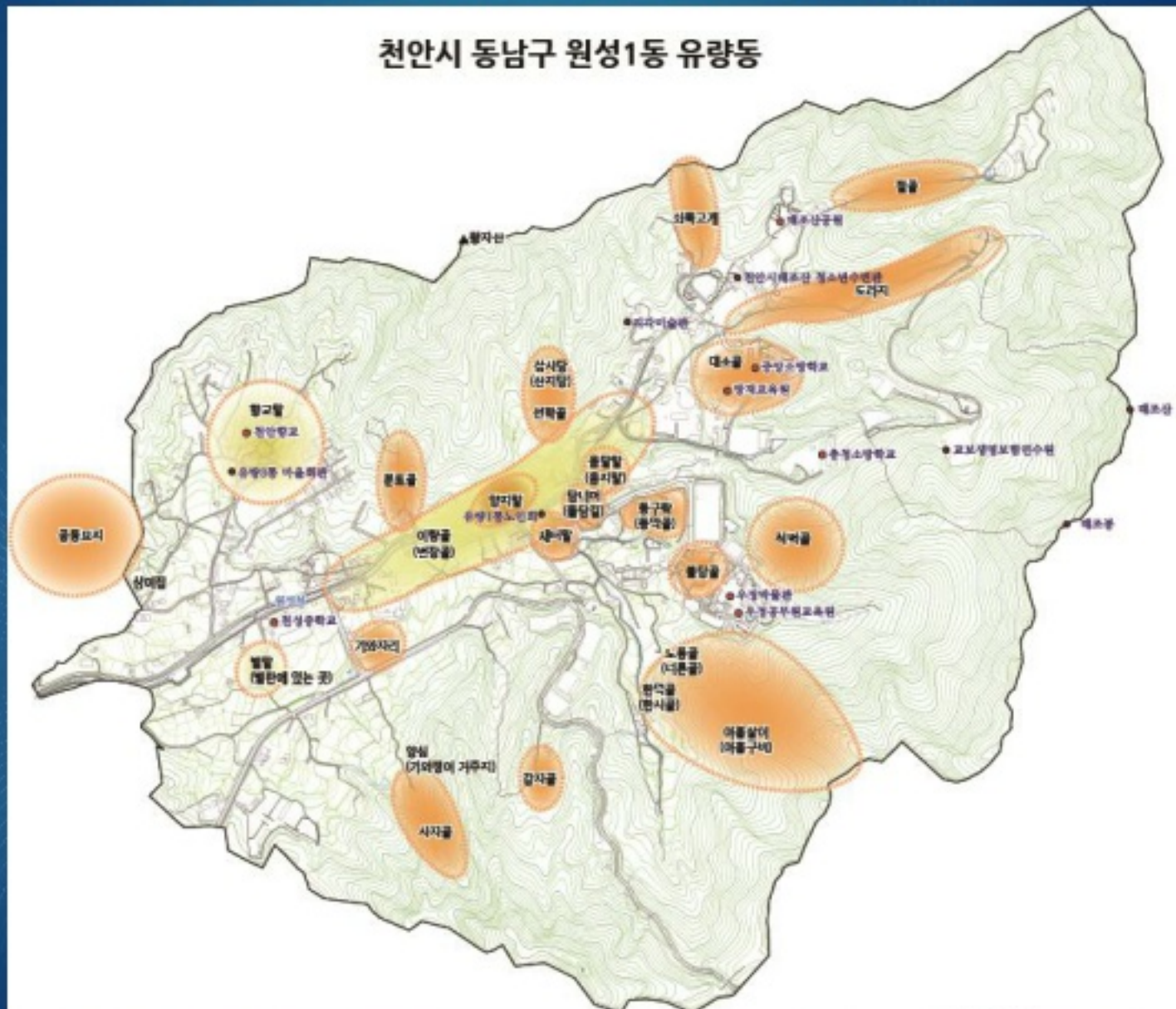
- 조씨 조상에 얽힌 전설 : 행암리에 최초 거주하기 시작한 조씨의 조상 한분은 축지법을 사용하여 한양까지 하루면 다녀왔다고 하며, 자기 집에서 종이에 글씨를 써서 문밖으로 던지면 고기나, 떡 등이 문 앞에 나타났다고 함
- 마씨 마두병 전설 : 마씨의 마두병이라는 사람은 부자였다고 하며 행암리에 땅을 모두 자기의 땅이라 하였다고 함. 그리고 항상 자신이 말을 타고 다닐 때마다 말 목에 엽전을 걸고 다녔으며 산적을 만나더라도 산적들이 집까지 모셔다 주었다는 전설이 있음

9. 동면 행암리(杏岩里)

근·현대 마을사진



10. 원성1동 유량동(留糧洞)



10. 원성1동 유량동(留糧洞)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명칭유래

- 고려 태조 때 이곳에 군량을 쌓아 두어 유량골[留糧里]이라 불린 것에서 이름이 유래함

> 마을유래

- 유량동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백제 이전으로 추측되며, '날근터'에 처음 정착하였다는 구전이 있음
- 원래 유량동은 변(邊)씨터라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 고려시대의 지방호족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변씨가 언제 사라졌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근 400년 전부터 이씨터가 되었다고 함
- 그 후 이백년이 지날 무렵 양주(楊州) 조씨와 남양(南陽) 홍씨가 들어와 삶으로 속칭 이·조·홍이라는 말이 생겼고 교촌에서는 황(黃)·김(金)·한(韓)씨가 원주민인데 이 분들은 천안관아 역원의 후손이라 함



10. 원성1동 유량동(留糧洞)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마을지명

- 유량골(이량골, 留糧谷) : 유량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원성천을 따라 형성된 골짜기로 고려 태조 때 군량을 쌓아 두었다고 하여 유량골이라 함
- 향교말(교촌리, 생교말, 校村里) : 한자어로 교촌(校村)이라 하고, 왕자산 아래 유량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천안향교가 있음
- 분톳골(분투골, 분통골, 둔텃골, 분곡, 盆谷) : 유량골 서쪽 있는 마을로 분토(粉土)가 낳다고 하여 분톳골이라 하였고, 분곡(盆谷) 이승벽(李承壁)의 호를 따라 분곡이라 불리게 되었다고도 함
- 날근터 : 양달말 뒷산 양지 바른 곳으로 동네가 제일 먼저 생겼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으며, 날근은 '낳다', '낳은' 등의 어원에 근거함
- 변장골 : 변씨가 살았다는 마을로 이씨가 들어오면서 변씨는 뱀발(현재 온양)쪽으로 쫓겨났다고 함
- 양달말(양지말, 양담말, 陽洞) : 분톳골 동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바른 곳에 있다 하여 양달말이라 불리고 양달말골이 있음
- 음달말(음지말, 음담말, 陰洞) : 양달말 동쪽에 있는 마을로 음달에 있다고 하여 음달말이라 함
- 절골 : 고려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할 때 이곳에 와서 머물렀던 유려왕사지(留麗王寺址)가 있었다고 하여 절골로 불림

10. 원성1동 유량동(留糧洞)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태조산 및 태조산공원

- 고려 태조 왕건의 전설이 깃든 태조산은 천안시의 진산(鎭山)으로 태조가 이 산의 서쪽 기슭에 주둔함으로써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함(천안의 진산은 왕자(王字)산이며 태조산이라 함은 일정초기 총독부에서 토지조사를 하면서 오기 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음)
- 태조산 공원은 태조산을 배경으로 조성된 전체 면적이 35만 8785㎡인 공원으로, 농구·배구·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천연 및 인조 잔디 축구장, 족구장, 수용 인원 500명의 야외 공연장, 조각 공원, 천안인의 상·천안함 추모비 및 천안함 모형·전투기·탱크 등이 전시되어 있는 볼거리 전시장, 태조산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가 있음



10. 원성1동 유량동(留糧洞)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인물

- **분곡(盆谷) 이승벽(李承壁)** (1554~1638) : 1585년(선조 18년)에 등용된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종규(宗圭), 호는 분곡(盆谷)임. 이승벽은 광해군(光海君)이 인목 대비(仁穆大妃)를 서궁(西宮)에 유폐하고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이는 것에 대해 상소를 올려 부당함을 고하고, 1590년 낙향하여 천안의 현재 유량동에 살면서 마을 이름을 따서 호를 분곡이라고 함. 낙향하여 천안에 터를 처음으로 잡은 것이 현 유량동(留糧洞) 269번지로 분곡고택을 짓고 백사십 여 년간 원형을 잘 유지하여 오다가 1930년대에 헐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됨
- **민촌(民村) 이기영(李箕永)** (1895~1984) : 이기영 작가는 1895년 충남 아산(온양)에서 태어나 1905년 천안 안서동으로 이주하고 이후 1910년 유량동으로 이주하여 생활함. 1945년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의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월북 후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함. 그의 성장과 삶의 배경이 되었던 유량동이 그의 작품 「고향」과 「두만강」 등에 자연스레 담기게 됨

10. 원성1동 유량동(留糧洞)

근·현대 역사자료

> 마을민속 및 공동체

- **향사모** : 향교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으로 '향사모(회장: 이종대 노인회장)'가 2015년 1월1일부터 조직되어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청소 및 식사를 하고 있음

> 기관 및 시설

-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들에게 수련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천안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가 설립하고 백석문화대학교가 2014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 태조산길 261번지에 위치해 있음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 일상생활 속 발생 빈도가 높은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체험과 실습을 통하여 국민의 위기관리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태조산공원 내 태조산길 261번지에 조성됨



10. 원성1동 유량동(留糧洞)

근·현대 역사자료

> 기관 및 시설



... **중앙소방학교** : 전문 소방인의 양성이라는 목표로 설립되었고, 현재 태조산길 269번지에 위치해 있음



... **우정공무원교육원 및 우정박물관** : 우정공무원교육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 전국 4만5천여 우정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양지말 1길 11-1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본관에 우정박물관이 있음. 우정박물관은 1884년 우정총국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우정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우정전문박물관임



... **리각미술관** : 리각미술관은 조각가 이종각 선생의 예술적 열정과 성취를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한 기념적 성격의 미술관으로 1985년 3월 충북 청원 '이종각 야외조각 미술관'을 개관한 이래 1993년 12월 천안의 현재 위치(태조산길 245번지)로 이전 재개관하고 1997년 1월 '리각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함

10. 원성1동 유량동(留糧洞)

근·현대 마을사진



11. 청룡동 구룡동(九龍洞)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명칭유래

-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때 구두정(九斗井)과 용정(龍頂)의 이름을 따서 구룡리(九龍里)라 한 것에서 함

> 마을유래

- **배울** : 구룡동의 역사는 배울과 함께 시작한다. 배울은 풍천 임 씨의 묘를 지키기 위한 산지기들이 1637년 마을에 정착하면서 시작됨.
- **평뜸** : 평뜸에 처음 자리를 잡은 윤세명은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에서 태어남. 윤세명은 병자호란 때 척화론을 주장한 삼학사 중 한 분인 장인 홍익한의 양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평택에 내려와 사시다 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순흥 안씨가 천안에 살았던 것에 영향을 받아 구룡1통에 자리를 잡음
- **중리** : 윤세명의 형제 중 일곱째가 오리골(梧里洞)에 터를 잡았는데 8대조에 와서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중 8대조는 이곳에서 살았고 동생들은 중리로 분가함. 용리 앞 동네 역시 8대조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분가하여 정착한 것으로 보임

11. 청룡동 구룡동(九龍洞)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마을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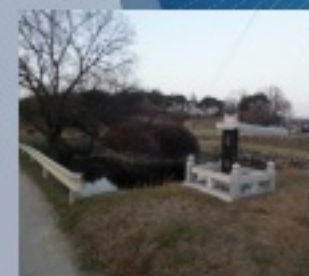
- **용평(龍枰, 평뜸, 平谷)** : 샛터말 남쪽에 있는 마을. 용정리와 평뜸을 합쳐서 용평이라고 함
- **중리** : 샛터(新垔)와 배울(梨谷)과 용정(龍井) 부락의 중앙에 위치하였다 하여 중리라 함
- **용정(龍井)마을** : 천안군 풍세면 미죽리와의 경계이며, 마을 위쪽에 지금도 은우물이 있는데 옛날에는 대단히 큰 우물이고 이 우물속에 아홉 마리의 용(龍)이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九龍洞이고 용이 살았다고 龍井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겼다고 함
- **배울(梨谷, 이곡)** : 배울 마을의 유래는 마을 모양이 배(梨)를 닮았다는 데서 유래함
- **요골(窯谷)** : 배울마을 아래에 있는 골자기로, 이곳에는 좋은 점토가 많아서 흙그릇 굽기에 알맞아 옛날에는 토기를 많이 생산 하였으나 지금은 자취가 없음
- **오릿골(五里谷)** : 중리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조리터라고도 부르며 풍수설에 의하면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 부자가 된다고 하며 지형이 용의 꼬리와 같다고 함. 골이 깊어 5리나 된다고 오릿골이라 함
- **동그란산** : 풍광이 뛰어나며 과거에 높은 사람이 묻혀 있는 묘소라는 설도 있음

11. 청룡동 구룡동(九龍洞)

마을유래 및 마을지명

> 마을지명

- **오이샘(웃샘, 찬샘)** : 들에 있는 샘으로 물이 차고 수량이 많아 웃 오른 사람이 마시고 목욕하면 효험이 있다고 함
- **토성산(土城山)** : 중리 뒤편에 있는 산으로 산의 정상부에 토성이 있음. 동리에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나이많은 노인을 업어다 놓던 고려장터라고 함
- **파직이고개** : 경부선철로 옆으로 뒤횚골에 이르는 언덕으로 풍세면 미죽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파직이 고개의 파는 뱀 파(巴) 자와 반듯할 직(直) 자가 합한 것으로 파직이 고개에서 보면 앞을 흐르는 개천이 뱀처럼 반듯하게 흐른다 하여 파직이 고개라고 정했다고 함
- **웃골(窯谷)** : 배울마을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는 좋은 점토가 많아서 흙 그릇 굽기에 알맞아 옛날에는 토기를 많이 생산했으나 지금은 자취가 없음
- **도루치보루** : 왕건과 후백제 전쟁 시 왕건의 군대의 초소로 지금의 선문대 뒷산 임
- **태봉산(泰奉山)** : 마을 남쪽에 있고 산중에 인덕사, 열두바위가 있으며 옆에는 안산 에는 뒷동산으로 둘러 쌓이고 삼태기 모양을 갖추고 있어 겨울엔 북풍을 막아주고 여름엔 시원하게 해줌
- **용담** : 시조의 묘가 보이는 앞에 인공호수를 만들어놓은 곳



11. 청룡동 구룡동(九龍洞)

근·현대 역사자료

> 관 행

→ 제사 : 1통은 정제사(우물제사)를 지냈는데, 그 달 운세를 15일 전부터 간지를 보아 날을 받고 생기복덕을 받은 사람이 부정타지 않게 조심하면서 지낸 뒤 제사를 올렸으나, 2012년 4월 7일 우물을 복정함. 3통은 산제사를 지냈으나, 현재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 없어짐

→ 시제 : 시제사는 시조부터 지내는데 구룡동에서 지내는 시제는 구룡동에 정착하신 윤이겸의 아버님부터 약 8대에 걸쳐 지냄. 11월 19일 음력 10월 8일을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약 2달 정도 순차적으로 지냄

> 풍 속

→ 출생 : 외여(반대로 꼬는 산내끼)를 집 대문 앞에 걸고 숯 등을 달아놓음

→ 놀이 : 과거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장화홍련전, 이수일과 심순애 등)과 노래자랑을 마을 청년들이 준비하여 현 초등학교 자리인 집마당(정제사 지낸 곳 앞 마당)에서 했다고 함

11. 청룡동 구룡동(九龍洞)

근·현대 마을사진



감사합니다